



편집인 칼럼

# 작물보호제 - 그 빛과 그림자

■ 최 운 흥 / 한국작물보호협회 전무이사

마야흐로 겨울의 초입입니다. 그리고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단풍의 화려함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는데 벌써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  
 다. 나무들은 하나들 이파리를 떨구고 어느새 나목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일찌감치 폭설까지 쏟아졌습니다. 가을로 화려하게  
 물들었던 산과 들이 겨울특유의 무채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즈음 한 지인  
 으로부터 최근 발행된 책 한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표지도 아주 예뻐니다.  
 책의 제목은 「농약의 빛과 그림자」였고 필자는 村本昇(무라모또노보루)氏  
 였습니다. 필자는 京都大學 의학부 약학과를 졸업하고 의약회사와 농약회사  
 를 두루 거쳤으며 정년퇴직 후 귀향하여 집필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필자는 책속에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농약과 의약에 대한 관념, 농약업계  
 의 고충, 농약비판론자의 문제점, 반농약운동의 관점, 저항성과 농약의 숙명  
 등 농약 전반에 걸쳐 누가 봐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안전위원회에서 농약잔류에 대한 홍보  
 동영상 「걱정되는 농약 - 안심하고 먹을수 있을까?」를 제작하여 정부 홍보라  
 인에 띄웠습니다.  
 잔류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생태계에서의 농약의 분해과정, 농약 개발과정, 농약을 왜 사용해야 하는  
 지 등을 정말 자세하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농약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 분야에 상당수

가 진출해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의 역할과 정당성'에 관한 저술된 책을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농약에 대한 정당성과 역할'에 대한 단행본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으며 농약에 관한 잘못된 기사나 편향된 기사가 보도될 경우 학계와 산업계에서 즉각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등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산업계도, 학계도, 그리고 나아가 정부기관에서도 작물보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면에서의 진지한 토론문화가 형성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같이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활동에 필수적인 식량자원의 생산에 필수 불가결한 농업용자재중의 하나가 작물보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잔류농약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과학적인 분석결과나 평가에 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소비자는 잔류농약의 불안으로부터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 한해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작물보호업계가 그 어느해보다 내실있고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Y

